

# 시멘트防水劑의 製造方法

## 18年 研究 끝에 完製品 내놔...趙奇鎬 사장



〈趙奇鎬 사장〉

編輯室

### 종래 防水劑 缺點 거의 해결

趙사장이 發明한 코스타 防水劑는 시일이 경과할수록 강도가 높아져 1차 시공만으로도 끝나기 때문에 종래 방수제가 갖는 결점을 거의 해결해 준다.

자재와 기술을 조화시켜 건축의 수명과 美를 최대한 유지시키는데는 방수시공과 방수제의 역할은 지대하다.

趙사장은 기존의 急結防水(방수액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문지르거나 비로 맥개질하는 방법) 아스팔트防水(아스팔트를 두껍게 입히는 방법) 粉末방수제(분말로된 방수제를 혼합사용) 등의 방수법이 제각기 완전방수 효과를 갖지 못한 점에 착안, 有機性 방수제를 발명해냈다.

趙사장의 설명으로는 기존방수제의 절반값으로 완전히 가까운 방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이 「코스타」란 상품명으로 내놓은 3.5kg 들이 1통이면 2~4평의 방수처리가 가능하며 연고형이어서 건축물상부로의 이동과 수송에 아주 편리하다는 설명. 특히 겨울에도 얼거나 마르지 않는 것은 지방산에다 황산칼슘처리를 해 이

것이 석고로 바뀌는 화학작용을 內在하기 때문 이란다.

### 66년부터 發明에 投身

趙사장이 이 방수제 發明에 손을 댄 것은 지난 66년경. 42세때 민주당 아산군 감찰위원장을 맡는등 주로 청년운동을 벌였던 趙사장은 3·15 부정선거 등으로 정치와 청년운동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60년에 새로운 인생살이를 시작했고 그런지 6년만이였다.

6년중 처음 3년 동안은 구두약이나 염료등의 시약 초파라핀 등을 만들어 팔았고 나머지 3년 동안은 광물성 접착제를 만들어 팔았다.

당시 담십리에서 한옥을 많이 지었는데 벽을 바르는 접착제로 해초를 달여 쓰는 것을 보고 광물성 접착제를 만들어냈다.

구산소다를 활용한 이 광물성 접착제는 지난 해까지 20여년간 趙사장의 생업이 되어 왔다.

그는 日本 滿蒙전문학교 재학시 東京 오우제 화학공장에 전시봉사를 나간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귀중한 자산이 될줄은 몰랐다.

63년부터 3년여 접착제 장사를 하던 趙사장이

- …… 18년 研究 끝에 완전 에 가까운 방수제를 발명, 이를 상품화시킨 사람이 있다. ……○
- …… 韓國코스타防水劑製造所 趙奇鎬사장(62)은 물이 기름을 통과하지 못하는 원……○
- ……리를 이용하여 건축관련 防水업계에서 가히 혁신적이라는 평을 듣는撥水性 방……○
- ……수제를 發明, 지난 5월 21일 第20回 發明의 날 行事에서 大統領表彰을 받았다. ……○
- …… 고급 지방산을 주원료로 하여 화학처리된 이撥水性防水劑는 콘크리트나 모……○
- ……르타르 등과 혼합될 경우 화학작용으로 물을 反撥케 하여 완전한 방수효과를……○
- ……얻도록 했다. ……○
- …… 이미 特許廳으로부터 특허권(特許 第14082號 登錄)을 얻어낸 이 방수제는 온……○
- ……도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모체콘크리트와의 접착력이 강해 들뜨지 않도록……○
- ……고안됐다. 그런데 趙사장의 코스타防水劑는 '83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서 特許……○
- ……廳長賞을受賞한데 이어 84년에는 뉴욕 國際發明展에 出品되어 영예의 金賞을……○
- ……受賞, 製品의 성능을 國內外에 과시한 바 있다. ……○(編輯者註)……○



돈을 좀 모을 무렵인 66년경에 거래하던 집장사들이 좋은 방수제를 좀 만들어 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자주 해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회상한다.

### 지금도 發明에 沒頭

66년경부터 10여년동안은 이론 규명과 함께 우리나라와 日本 등에 대한 기존을 방수제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는 한편 자신이 만든 시제품

으로 실제 공사를 하기도 했다.

온갖 기계와 시멘트조각 시약등으로 자기집 25평 지하실은 온통 방수실험장이 됐다.

형태로 봐서 기존방수제가 액체기 분말형으로 된 점에 착안, 연고형이라는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됐다.

연구 10년만인 지난 76년경부터는 아예 접착제 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한채 이 방수제 발명에만 전념했다.

시공시험결과를 분석하고 화학실험을 계속했으며 추운 겨울에는 시험실을 아예 안방으로 옮기기도 했다.

81년에 외서는 자신의 발명이 특허감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상품화를 모색했다.

趙사장은 특허청에서 特許(第14082號)를 얻어 내면서 상품생산을 시작했다.

18년만의 각고끝에 상품화에 나선 趙사장은 오늘도 실험실(서울 하월곡 2동 15-21)에서 특허방수제 개량 연구에 몰두하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W>